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선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벽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전 은 희

벽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선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전 은 희

인 준 서

전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미술은 개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직접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삶과 분리된 예술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감동적이지는 않다. 사실 지금의 현대미술은 작가의 삶보다는 개념의 논리나 제도의 문제와 더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있어 일반인들은 이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난해함과 현실과 분리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20세기에 들어와 현대의 미술은 좀 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독창성, 창조성, 참신함을 가진 회화로 발전하였다. 즉, 과거 미술의 개념이 모방론 혹은 표현론의 차원에서만 해석되었다면 그와 다른 맥락의 회화를 개념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지적개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회화의 존재방식과 패러다임 자체에 대해 개념적으로 적극적인 성찰과 철저하게 자신의 일상과 구체적인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내며 작가 스스로의 정신과 일상의 감정들을 담아내는 작업이 많아지고 표현 방법이나 개념적인 면에서도 훨씬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술은 한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고, 각자들의 감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품들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아는 경험적 현실의 구조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집요하게 밝힌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나 기억은 본인이 벽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벽에 낙서하고 야단맞았던 기억이라든지 높은 담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느꼈던 위압감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벽, 특히 낡고 오래되어 부서지고 얼룩진 벽에 시선이 돌려지게 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벽이라는 주제를 통해 벽이 갖는 시간의 흔적과 조형성으로 구획되어진 벽의 공간에 대해 논하였다. 벽의 표면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흔적과 대면하는 사물들의 그림자로 시간성을 표현하였으며 벽에 생긴 구멍이나 창문을

통해 공간의 소통을 말하고자 하였다.

벽이 상징하는 일반적인 경계의 의미를 넘어서 잊혀진 세월에 대한 시간의 기억을 상기 시켜주는 과거의 부서지고 얼룩진 흔적과 현재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통해 벽이 담고 있는 시간과 그러한 벽들이 존재함으로서 생기는 조형적인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벽이 가지는 공간성을 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벽에 나타난 시간성	3
1. 현대 미술에서의 시간의 의미	3
2. 벽의 시간적 상징	6
III. 벽의 공간성	10
1. 공간에 표현된 조형성	10
2. 벽에 나타난 소통의 표현	12
1) 구멍과 파이프	12
2) 창문	13
IV. 작품분석	16
V. 결론	36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벽 · 공간의 기억,	200cm × 890cm,	2009	17
【작품 2】	벽 · 공간의 기억,	76cm × 155cm,	2009	20
【작품 3】	벽 · 공간의 기억,	194cm × 391cm,	2008	22
【작품 4】	벽 · 공간의 기억,	230cm × 700cm,	2009	24
【작품 5】	벽 · 공간의 기억,	162cm × 261cm,	2009	26
【작품 6】	벽 · 공간의 기억,	78cm × 131cm,	2009	28
【작품 7】	벽 · 공간의 기억,	97cm × 130cm,	2009	30
【작품 8】	벽 · 공간의 기억,	91cm × 73cm,	2009	32
【작품 9】	벽 · 공간의 기억,	131cm × 97cm,	2009	33

도 판 목 차

【도판 1】 앤디 골드워시, <무지개 조각들>

【도판 2】 앤디 골드워시, <마가목 잎새들>

【도판 3】 에드워드 호퍼, <밤의 창문>

【도판 4】 에드워드 호퍼, <아침의 태양>

I. 서론

미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그리는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에 따라 그림 그리는 행위라는 것도 불가피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그 밑자락을 들춰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세계와 자신의 실존 간에 파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고 해답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그림 그리기라고 생각한다. 소설가는 글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음악가는 작곡이라는 창작 행위로 매체에 접근하고 그림 그리는 우리들은 보여 지는 작품으로 답을 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는 행위로 심상을 표현하는 본인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기억에 기반을 두고 생겨난 감정들을 주변 환경과 사물에 이입시켜 표현해 보았다. 이러한 체험적 동기는 삶 속에서 본인이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떠한 장소에서 즉, 고궁의 세월의 역경을 함께한 담, 도로건너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빌딩의 유리창,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고즈넉한 집의 벽 등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단어로도 벽이 갖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쉽게 정의할 수 없다.

높은 벽에서 느껴지는 위압감과 수직적인 상승감은 더 커질수록 강해지는 경계성과 영역의 차별성으로 벽은 건잡을 수 없는 단절에 의한 소외감을 상징하는 존재다. 즉, 가장 고립적이고, 배타적이며, 절대적인 것의 상징 같은 존재이다.

본 논고에서는 본인이 이러한 벽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미의 분석과 함께 벽-공간의 기억이라는 작품제목이 가지는 정서적 표현을 연구하

고, 경험으로부터 느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성을 작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벽이 가지는 시간성에 대해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사례와 이론을 분석하였으며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벽에 드러난 흔적들과 사물에 의해 드리운 그림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표현해 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벽이 가지는 공간성을 평면구조가 아닌 공간속에서 구현된 형태로 벽이 나누어 놓은 공간이 가지는 소통의 부재를 구멍이나 파이프 그리고 창문을 통해 공간을 다른 공간과 구별하기도하고 연결하기도 하는 소재로 나타내 보았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벽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성에 대한 의미를 논하고자 하였다.

Ⅱ . 벽에 나타난 시간성

1. 현대미술에서의 시간의 의미

시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나아가 세계의 존재 혹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만나게 되는데, 결국 시간은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발견한 인간의 본래적 환경 중 하나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가장 큰 수수께끼이며, 역사를 통하여 일면 불가사의한 시간의 본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해왔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비교해보면, 공간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만 시간은 차례로 조금씩 체험되고 있다. 즉 시간은 마치 화살과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고 있다.¹⁾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에 의해 논하여진 이래로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의 철학적 주제를 형성 하였다. 시간이 직접적인 주제로 부각된 것은 칸트(Kant, 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²⁾에서 였으며 그 이후에도 시간에 대해서는 후설(E.Husserl, 1859-1938)의 현상학³⁾과 베르그송(H.Bergson, 1859-1941), 하이데거(M.Heidegger, 1889-1976)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1) '시간의화살(The arrows of time)'이라는 용어는 1927년 천문학자 아서에딩턴(Arthur Eddington)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Peter Coveney, Roger Highfield, 이남철, 서울:범양사출판부, 1994, p24

2) 칸트(Kant, 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 인간의 이성은 감성(엄밀히 말하면 감성의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공간과 시간)과 결합함으로써 수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확실한 학적 인식(學的認識)을 낳을 수 있지만, 일단 이 감성과 결부된 '현상'의 세계를 떠나서 물자체(物自體)의 세계로 향하게 되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말려들어 혼란되지 않을 수 없다.

3) 후설(E.Husserl, 1859-1938)의 현상학: 기존 모든 편견과 관념에서 벗어나 의식에 주는 사태 자체를 직관함으로써 본질을 인식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삼는다.

더욱더 개념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루카치(G.Lukacs 1885-1971)⁴⁾는 시간은 공간과 함께 인간의 본래적 환경이라고 말한다. 이는 작업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은 예술가에게 주어진 본래적 환경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고는 서구문명사회에서 시간의 직진성과 비가역성을 가져와 시간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뻗쳐있는 직선적인 경로로 여기게 되었고, 이러한 비가역적 시간관은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그러나 시간은 달과 별의 변화와 주기적인 반복, 태양의 극점과 계절의 변화와 같이 본질적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은 주변 환경과 같은 사이클 속에 융합됨으로써 시간을 초월한 영속성 대신 시간에 따른 가변성을 본성으로 내재하게 되었다. 미술작품도 생태계의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탄생과 소멸이라는 운명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술의 영역확대는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⁵⁾ 이러한 개념은 과정미술(Process Art)⁶⁾라는 용어로 정리되어 적용되어져 왔다. 앤디 골드워시(Andy Goldworthy, 1956-현재) 또한 과정미술의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장소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 형식이 일반화된 가장 큰 이유는 작가들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소재와 재료의 선택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념이나 시간이 예술의 중요한 표현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야외나 주어진 장소의 자연물에 형태를 부여하여 예술의 표현형식을 만들려는

4) 루카치(G.Lukacs, 1885-1971): 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문학사가

5) 장 루이 프라델, 현대 미술-라루스 서양미술사 7.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6) 과정미술(Process Art): 프로세스 아트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걸쳐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술 운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그 작품의 주제로 삼는 미술이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아트는 결과보다 방법과 과정을 중시하며 미니멀리즘의 형식주의와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명료성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아트의 개념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제시되어 왔는데, 잭슨 폴록의 거대한 캔버스가 그림이라기보다는 환경의 느낌을 준다는 엘렌카프로(Allen Kaprow)의 말에서 시작되었다.

대지미술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정미술은 시간과 과정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 자연 속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와 작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까지도 작품의 일부분에 포함할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낡고 오래된 벽에서 발견한 시간의 개념은 공간의 경계성과 함께 작품 전반에 걸쳐 중요한 모티브를 이루고, 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장소에서의 시간의 체험은 생활공간이 갖는 '역사적 시간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작가의 시간은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선형에서 기인된 과거의 시간과 그 흔적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진다. 이 둘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한 공간과 한 시간 속에서 관람자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내적, 외적 경험들을 '시간'이라는 객관성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개인 고유의 시간이라는 주관적인 해석을 내려 여러 현실의 공간과 공간에서 나타난 고유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벽의 시간적 상징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낮은 건물 벽이나 높은 담이 그 자체로 호기심과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상 위협적인 존재이다. 고립적이고 배타적이며 절대적인 것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낙서하고도 싶고, 파괴하거나 넘어가 보기도 저 하고 싶은 어떤 의식과 상상을 가지게 한다. 그런 고립적이고 소외의 존재였던 시간에 대해 절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순간을 공간과 시간의 한 점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즉, 존재를 공간에도 시간에도 동시에 기대어 있는 하나의 총체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장소와 현재, 즉 '여기'와 '지금'의 결합점으로서 '여기'와 '내일'의 그것도 아니고, 저쪽과 오늘의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장소, 시간 자체에서 동시성은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 된다. 이로써 인간이 존재하는 본래적인 환경에서 행하는 작가의 예술적 작업이 행위, 시간, 공간이 일체가 되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재형식과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은 직선적 의미의 시간과 회귀적 의미의 시간, 그리고 나선형의 의미의 시간으로 나뉘는데 본인은 생성과 소멸을 의미하는 나선형의 시간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생성과 소멸의 중간 과정에 속한 시간을 벽이라는 주제를 통해 말하고자 하였다. 낡고 오래된 벽에 드러난 표면적인 과거의 흔적들과 현재의 벽이 대면하고 있는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간이란 결코 새로움이 아니지만 삶 속의 새로운 체험과 발견을 통해 작업 안에 흐르는 원천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의 흔적들은 과거의 시간과 존재하던 이들의 삶의 공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벽은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누구든 오래된 건물과 같은 곳의 내부에서 그 시간의 흔적들을 발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본인의 생활 장소에서 나아가 사람들의 생활현장을 찾게 되면서 아직 개발이라는 변화를 격지 않은 허름한 동네를 먼저 눈에 들어 왔다. 그리고 어렵게 찾은 허름한 건물들의 벽을 보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한 아찔함과 그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는 희열감을 느끼는 등, 이러한 발견의 과정 또한 작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벽이 가지고 있던 긴긴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려 하였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아이가 큰 캔버스인 양 그림 그리고 낙서한 대가로 어른에게 야단맞는 벽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았던 삶의 애환이 담긴 이끼 낀 아련한 벽도 있다. 이제 곧 무너져 흔적조차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이나 남아있을 무시무시한 관념의 벽을, 본인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삶의 형태를 지닌 호홉하는 벽으로 인식하였다.

본인은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상징을 벽에 남은 흔적과 그림자로 표현하였다. 벽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흔적들은 여러 형태를 띠게 된다. 벽돌로 하나하나 쌓은 벽에 틈새로 초록색의 이끼가 낀 흔적이나 몇 번이고 바르고 또 벗겨진 페인트의 흔적, 자연환경에 의해 생겨난 곰팡이나 풀들의 흔적 등은 벽은 자체로 다양한 모양과 시간을 가진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흔적들은 벽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저분한 벽은 시간과 공간에 퇴색된다. 본인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간에 대해 표현되어지고 있는 흔적들은 지나간 과거의 세월을 의미하며 그 흔적 위에 현재의 시간들이 덧 입혀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림자는 사물이 어떤 사물에 비추어진 이미지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61-113) 는 <박물지 Historia Naturalis>에서, “우리는 회화의 기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회화는 선으로 윤곽선을 그린 인간의 그림자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서양에서

예술적 재현의 탄생이 '음화(陰畵)'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 회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부재/존재라는 주제(신체의 부재와 그 투영된 형상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⁷⁾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보다 한 세기 뒤에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인형은 한 젊은 여인에 의해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녀에게 매우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고, 그녀는 남자가 잠들었을 때 벽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를 그렸다. 그리고 나서 용기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그 대단한 유사성에 매혹되어 흠으로 메워 나감으로써 그 이미지를 조각했다. 두 사람의 의견에서 상당히 명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재현이 그림자에 근거를 두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보조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재 중인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보조물 말이다. 그림자와 재현 이미지들 다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닮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지속적으로 변하는 실제 그림자는 그가 이동할 때 그를 따라다닐 것이지만, 벽에 그려놓은 그의 그림자 이미지는 이동에 반대되는 추억의 기념물로 남을 것이고, 따라서 위안을 주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 그림자는 사람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 사람의 윤곽선은, 일단 벽에 그려지면 그대로 영원히 이미지의 형상으로 존재를 불멸화한다.

본인의 작품에 드러난 그림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화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들은 작품 속에서 끝이 잘린 '단편'이 아니라 반대편 풍경의 '전달자'인 것이다. 자연에서 그림자는 낮의 바로 어느 한 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작품속의 그림자는 존재와 생성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벽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흔적위에 반대편에 존재하는 나무라든지 낮은 담, 그리고 항상 놓여져 있는 삶과 관련된 물건들이 현재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

7) 그림자의 짧은 역사, 빅토르 I. 스토이치타. 현실문화연구, pp.19-20, 2006.

좁은 골목길에 마주하고 있는 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마다 달라지는 그림자로 상대방을 비춰준다. 벽의 앞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자신의 존재를 벽에 그린다. 그 그림자들은 벽에 존재하는 과거의 흔적들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흘러가는 과거가 되어간다. 앞서 말한 흔적이 과거의 시간의 상징이라면 그림자는 현재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간을 고정되게 말하고 있는 작품들 속에서 그림자들은 실상은 시간 시간마다 다른 형태를 보여 준다. 벽속으로 현재의 삶을 끌어들이고 단순하게 정면성을 띠고 있는 벽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낸다.

Ⅲ. 벽의 공간성

1. 공간에 표현된 조형성

공간(空間)의 사전적 의미는 집의 쓰지 않고 비워둔 간(間), 하늘과 땅 사이, 그리고 상하 전후좌우로 무한하게 퍼져 있는 빈 곳이라는 뜻이다. 공간에 놓인 벽은 그 벽을 둘러싼 주변공간을 둘로 갈라놓는다. 그 갈라짐은 나와 타인의 구분이기도 하고, 나와 나의 인식 사이에 놓인 자리다툼의 장소이기도 하다. 벽은 두 가지 의미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쪽의 벽과 타인의 자리에서 다른 영역을 인정해야 하는 바깥쪽의 벽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는 공허한 콘크리트의 빈 공간이 자리한다. 우리의 인식은 결코 담 외부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벽이라는 단어 규정 속에서 드러난다. 벽은 항상 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나를 위협한다. 도대체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둔 이념대립의 종착역은 허물어버림에 있었다. 그러나 벽을 허문다고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베를린 장벽이라는 물리적인 벽보다 더 큰 벽, 바로 차별과 편견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뇌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 되는 상상의 벽이다. 어느 벽이 더 견고한가? 실제로 막혀 있는 벽과 가상으로 막혀 있는 벽, 혹은 믿음으로의 막힘을 뚫을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은 결코 호응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벽 안쪽의 공간과 벽 바깥쪽의 다른 공간의 경계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낡은 인식의 고정관념 밖에 없다. 벽은 결코 형태를 가진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계 지움의 추상성을 내포하는 내부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소외를 원한다. 나를 타인과 구분하고, 타인을 타인과 구분하기 위한 소외, 스스로 벽 밑에서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소외 말이다. 일반적으로 서로가 다가가지 못하는 삼엄한 경계의 벽, 그 벽은 이제 더 이상 견고한 벽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역사 그 자체이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벽들의 형태는 대부분은 정면성을 띠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키보다 더 큰 크기의 벽을 정면으로 그려 높은 물체를 정면으로 대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위협감이나 또는 답답함을 나타냈으며 정면으로 대응하고 가르며 소통의 부재와 함께 막힘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순한 형태는 옆으로 난 작은 골목이나 안과 밖이 소통할 수 있도록 뚫린 구멍, 또는 자리만 남은 창문 등의 요인들로 지루함을 피했다.

<작품1>에서는 정면으로 막힌 7미터의 넓고 부서진 벽 옆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골목을 그려 막히고 답답한 벽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표현하였고 <작품4>에서는 한 가지 소재의 벽을 서로 다른 크기의 화판에 소통의 구멍을 가진 개별적인 벽으로 그리고 벽에 설치할 때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하여 작품과 작품 사이의 빈 공간을 다른 벽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다.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벽에 생명줄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붉은 파이프는 구멍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호흡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여 붉은색을 진하게 드러나도록 그대로 표현하였으며 검게 생긴 이끼나 곰팡이 자국도 벽의 하단부에 초록색과 고동색이 섞인 검은색으로 채색하여 오래된 듯한 느낌을 살려 표현하여 보았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오래되어 부서지거나 벗겨진 그대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탈색된 듯한 붉은색과 연한 옥색과 대비되는 황토색등의 사용과 함께 작품 안에서 벽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벽에 나타난 소통의 표현

1) 구멍과 파이프

낮은 벽이나 담들은 그들의 시간만큼 각자의 다른 형태들을 가지게 된다. 벽은 각종 재료들이 자연현상과 함께 본래의 모습에서 바뀌게 되고 낮은 흙 담은 무너져 내리기도 하며 인위적으로 구멍이 나기도 해서 그 형태가 그대로 굳어 나뭇대로 자리를 잡고 세월을 견디게 된다. 생겨난 구멍이 안으로의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며 인위적인 구멍으로 가스 파이프 등이 연결되어 소통의 매개체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구멍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작업에 활용한 대지미술작가

앤디골드워시(Andy Goldsworthy)⁸⁾는 1974년부터 십년동안 '구멍(Hole)'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으며, <무지개 조각들, 도판 1>, <마가목 잎새들, 도판 2>과 같은 작품들에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나뭇잎, 흙, 벽돌, 슬레이트 등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였다. 앤디골드워시는 많은 시간을 구멍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보냈으며, 구멍들의 끝을 마치 어떤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구멍의 주위를 맴돌아 왔고, 그래서 구멍을 들여다보면 무기력해지고 지구의 잠재적 에너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구멍속의 검은 색은 그 에너지가 가시화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검은 구멍은 불의 불꽃과 같아서 검은 색은 지구의 불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 구멍은 어떠한 빛도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됴므로써 외부와 차단되고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어둠뿐이다. 이것은 구멍의 길이를 추측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에너지가 그의 구멍 작업의 개념 중 하나이다.

본인의 작품에 드러난 크고 작은 구멍들은 소통을 위한 숨구멍으로 작용한다. 위엄 있는 경계의 벽에 작은 숨을 쉬게 한다. 구멍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통로

8) 앤디골드워시(Andy Goldsworthy, 1956-현재): 영국작가로서 대지예술가, 자연주의자로도 불리며, 장소에 관련된 작업이나 자연을 이용해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한다.

로서의 장치인 것이다. 구멍이 난 자리는 과거에 무언가가 존재하던 자리였으며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던 곳이었다. 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파이프들도 이 구멍을 통해 연결되고 시작된다.

흰 벽 밖으로 너무도 선명히 드러난 가스 파이프는 그 자체로 그들의 생명줄이다. 파이프는 안의 공간과 바깥 공간을 연결 시켜주는 통로이며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흡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 모양도 어느 하나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좁은 벽과 벽 사이로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해준다. 이런 파이프들은 새로 지어진 깨끗한 건물에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다. 미리 설계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의 내부에 설치가 되지만 파이프를 이용해 무언가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 가야할 위치에 따라 각각의 모양을 한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구멍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파이프라는 존재를 소유하게 된 벽은 벽 자체일 뿐 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삶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파이프들은 단순하지만 작품의 중앙에 진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져 힘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 창문

벽과 벽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며 두 공간을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기도 하는 창문은 회화에서 감정표현의 대상이나 비유적 상징의 이미지로 쓰여 졌다.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단순하고 평범한 창문에 회화를 통한 감정적인 요소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창의 매력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는 일반적 원리, 즉 회화에서의 창은 분리된 내부와 외부세계의 공존과 교류를 눈을 통해 지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눈을 통한 외부에 대한 열망을 풍경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창의 이미지를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 현실과 이상,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소통을 표현하는 도구로 나타내었다. 그의 작품 <밤의 창문, 도판 3>이나 <아침의 태양, 도판 4>에서 보여지 듯 안과 바깥을 동시에 마주 접하여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고 빛의 통로가 되어 그 빛이 들어옴으로써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있게 된다. 즉 창은 정적인 공간인 동시에 동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사물의 그림자에 따라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가끔씩 창문의 기하학적인 명료함은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는 살짝 엿본 유리창을 통해 연출되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드라마에 대해 “활짝 열려진 창문너머로 안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결코 닫혀진 창을 통해 슬쩍 엿보는 것만큼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 오직 하나의 촛불에 의해 밝혀진 창문만큼 심오하고, 신비스럽고, 풍부하고, 교활하고, 또한 눈부신 것은 없다. 대낮의 태양아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창문 뒤에서 진행되는 일보다 항상 덜 흥미롭다. 바로 그 어둡고 빛나는 사각형 속에서 삶이 살아있고, 삶이 꿈꾸며, 삶이 괴로워한다.”라고 말했다.⁹⁾

로렌즈 에이트너(Lorenz Eitner, 1919-현재)는 “로맨틱한 예술가들에게는 창문 이미지가 로맨틱한 문학을 수행하는 돌파구, 여행에 대한 강한 욕망, 좌절된 기다림 등의 테마들을 완벽하게 나타내준다.”라고 결론지었다.¹⁰⁾ 이는 우리가 창을 통해 외부를 바라볼 수 있지만 창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예술가들은 창문 이미지의 정서적이고 형식적 특질을 탐

9) 찰스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1821-1867), *Windows*, Paris Speen, trans. Louise Vare'se, N.Y.;A New Directions Book, 1947, p77

10) 로렌즈 에이트너(Lorenz Eitner,1919-현재,체코미술사학자), *The Open Window and the Storm Tossed Boat: An Essay in the Iconography of Romanticism*, *The Art Bulletin* 37, December 1955, pp.281-90.

구해 왔는데 그 중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1810년에서 1830년 동안 낭만주의 주제 속에 19세기 유럽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꾸준히 나타난 전통적인 소재인 인물과 창문의 모티브를 계승하며, 미국 체험의 심리학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평을 위하여 이 모티브를 비유적 표현 혹은 상징화하여 이용했다. 반면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 벨기에 화가)는 역설적 이미지로 가득 찬 세계를 현실과 환영의 문제로 드러내고 '그의 속의 그림'에서 '창문의 문제'로 나타내었다. <지는 저녁>이나 <인간의 조건>에서 애매모호함을 통해 실제 공간과 착시적 공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등 예술적 재현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창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창문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세월의 힘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연환경에 의해 약해지고 또 인간들의 물리적인 힘을 이기지 못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져 틀이 완전히 빠져 버린 형태로 보여진다. 뜯겨 내어지고 망가진 형태를 하고 있지만 존재만으로 닫혀진 벽의 막막함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전히 창문은 벽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완벽한 상태에서 공간과 공간의 풍경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일차적 소통의 중요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IV. 작품 분석

현대의 회화는 과거보다 더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촉각적인 직감과 시간성의 개념을 중요시 해가고 있다. 미술에 대한 복수적인 사고가 가능해졌고 그만큼 예술, 회화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졌다. 오늘날의 회화가 설치작업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확장에 대응하여 자신의 영역을 재중심화 하거나 시장, 비평, 미술관의 제도적 보호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다른 의미이다. 인종이나 성별, 지역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통행할 때 새로운 영감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복잡다단해진 현대의 회화는 우리의 삶과 현실을 특정한 시대속의 한 공간 안에 기록함으로써 과거의 한계를 넘어 또 다른 리얼리티를 구현하기도 한다.

본인은 작품에서 벽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높이에서 오는 경계심과 두께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에 착안하여 작품을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 남의 집 담에 잔뜩 낙서를 하고 야단맞았던 기억과 그 후에 생겨난 벽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작업의 모태가 되었다. 사람들 간의 거리는 처음에는 모두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께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한다. 그 사이로 오가는 감정의 차이로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느낌들을 단순화된 벽의 형태로 표현하고 벽의 표면에 담고 있는 흔적을 통해 감정의 시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벽이 가지는 형태에서 오는 공간과 직접적인 표면의 흔적들을 더 드러내 작업하였고 벽이 가지는 질감의 현실감 있는 표현을 위해 여러 종류의 한지를 실험하여 한지에 바나나 껍질을 섞은 거친 한지를 골라 작업하게 되었다. 장지에 바나나 껍질이 섞인 한지를 바르고 그 위에 담묵으로 1차 채색을 하고 마른 후에 스케치 하여 호분과 분체를 이용하여 벽의 두껍고 거친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겹쳐서 칠해 표현하였다. 벽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두께 만큼 담묵으로 혹은 담채로 여러 번의 채색을 통하여 시간을 체험하며 작업하였다.

작품 속에는 시간의 상징을 창문, 흔적, 그림자로 표현하였는데 창문은 완전하지 못하여 시간에 흐름을 거스르지 못해 약해지고,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흔적만이 남은 빈자리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창 의 모습이 뜯겨져 망가진 형태를 갖지만 단혀진 벽의 '소통의 길'의 역할을 한다. 벽에 드러난 얼룩지고 벗겨진 모습만으로도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흔적들과 그림자들은 작품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게 표현해 보았다. 또 그림자는 끝이 잘린 '단편'이 아니라 반대편 풍경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자연에서 그림자는 낮의 바로 어느 한 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작품속의 그림자는 존재와 생성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벽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흔적위에 반대편에 존재하는 나무라든지 낮은 담, 그리고 항상 놓여져 있는 삶과 관련된 물건들이 현재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요소들로 벽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을 작품화해 보았다.



【작품 1】 벽·공간의 기억, 200cm × 890cm, 2009

[작품 1]

제목: **벽 · 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크기: **200cm × 890cm**

높은 담이나 낮은 건물의 벽은 그 자체로 호기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엔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성장한 후에는 고립적이고 소외의 대상이었던 벽이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는 움직임의 공간으로 또 그 사람들의 인기척과 시간, 개인의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으로 다가왔다. 삼청동의 큰길가에 덩그러니 파헤쳐진 공간 주변으로 둘러쳐져 있던 이 벽은 이미 쓰러져간 주변을 쓸쓸하게 지키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도 이웃하고 있던 벽은 사라졌고 자신도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듯 부서질 대로 부서진 모습으로 길을 다 드러내다 못해 속까지 드러낸 모습은 몇 번의 덧칠로 여러 겹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 오랜 시간의 상처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벽을 정면 그대로 표현했다. 같은 크기의 붉은 벽돌들은 각자의 세월이 다른 듯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했고 발라진 덧칠은 낡음을 감추기 위해 여러 겹 씌워졌지만 여전히 세월이 가져다 준 시간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3합 장지에 곁이 거친 한지를 바르고 그 위에 연한 먹으로 1차 채색을 한 후 묽은 호분과 분채를 섞어서 채색을 하였다. 두꺼운 벽의 느낌을 내기 위해 연한 먹과 호분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채색한 후 점점 농도를 높여 분채와 섞어 색을 표현하였다. 채색되어진 화면은 한지의 거친 느낌과 여러 겹으로 채색된 물감의 두께와 함께 두껍고 단단한 벽의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

매끈한 시멘트벽을 표현할 때는 장지에 두껍게 바른 호분에 먹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두껍고 거친 벽을 표현할 때는 거친 한지를 장지위에 붙이고 호분으로

채색한 후 먹과 분채를 사용하여 묘사하였다.

벽은 결코 정형화된 형태를 지닌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벽은 사람들에게 막힘의 공간으로 여겨진다.

벽이 가지는 막힘에서 오는 위협감과 답답함을 나타내고 싶었으며 그 답답함 속에서도 타자와의 소통을 원하는 공간으로 골목길을 표현하였다.



【작품 2】 벽 · 공간의 기억, 76cm × 155cm, 2009

[작품 2]

제목: 벽·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크기: 76cm × 155cm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과 구획된 공간의 일차적 물체인 벽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사람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고 존재한다.

담으로 만들어진 낮은 벽은 삶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인기척, 직접 접촉하진 않지만 변화에 따른 감정의 파편들과 부재에서 오는 가슴 아픈 공허감, 그리고 단절에서 오는 소외의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모두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한다. 그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차이로 틈이 생겨 갈라져 터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아무리 덧씌우려 해도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갈라지고 벗겨진 상처를 아무리 예쁜 무언가로 가리려고 해도 본래의 모습은 덧발라짐 속에 존재하다가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가리고 씌워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체가 드러나면 그 추함에 더 부끄러워 질 뿐이다.

보호의 기능을 위해 담 위에 설치된 철망과 깨진 유리조각들은 단절감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들이다. 밝은 노랑으로 따뜻함과 친근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둡고 흐린 회색빛 하늘, 접근금지의 철망과 유리조각들은 설치한 것은 스스로 쌓은 담 안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말한다.



【작품 3】 벽·공간의 기억, 194cm × 391cm, 2008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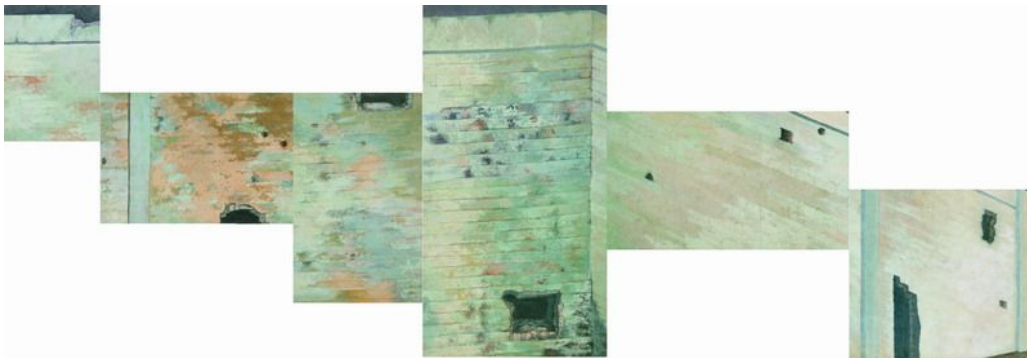
재료: 한지에 채색

크기: 194cm × 391cm

과거에는 수십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을 이곳은 이제 철거를 기다리는 폐허가 되어 버렸다. 삶의 모티브이자 존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그 누군가들의 자랑스러운 땀의 일터였던 그곳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을 것이다.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대상은 풍경에서 사라지기 전에 먼저 사람의 영혼에서 사라진다”고 했다. 사람들의 의식에서 그곳의 벽과 담장 그리고 내부의 여러 시설들은 이미 없어졌을 것이나 허물어지기 직전의 힘든 모습을 하고 서 있어도 그 장소는 과거의 모든 역사와 존재들을 기억하고 있다. 부서진 형태로 남겨진 벽의 흔적들만큼의 시간을 간직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로의 무언의 여행을 하게 만드는 그 장소는 과거의 모든 역사와 존재들의 삶을 말해준다.

그 암울한 분위기의 그 장소를 연두나 주황, 옥색 등의 밝은 색으로 모습은 변화 시키지 않으면서 지난 세월의 허망함 대신 나에게 보여준 희망과 약간의 미소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기억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부재의 상태에서 오는 가장 쓸쓸하고 적당히 슬픈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때론 거칠고 때론 희미한 숨소리들을 진한 농도의 호분과 분채로 채색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창문의 흔적은 부서져 있는 상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창을 통해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또는 그 반대편에서 이쪽을 넘겨볼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4】 벽·공간의 기억, 230cm × 700cm, 2009

[작품 4]

제목: **벽 · 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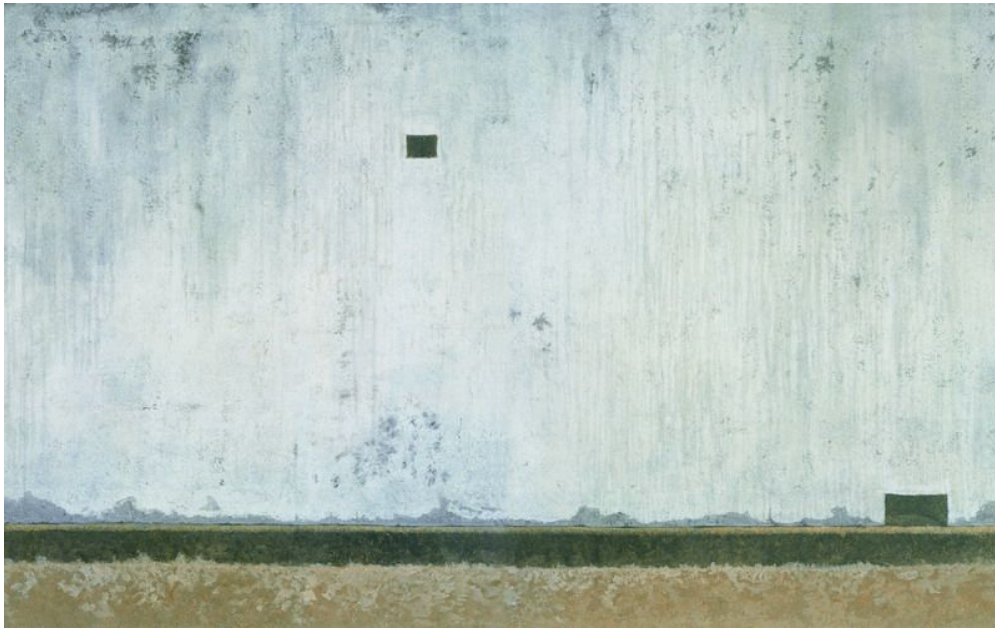
크기: **230cm × 700cm**

매일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던 길가에 있던 폐허가 된 대규모의 공장이 있었다. 얼핏 보아도 천 평이 넘어 보이는 땅에 길게 이어진 건물이 몇 개의 동을 이루고 있는 큰 공장이 자리했던 곳이었다. 뜯겨진 창문에 지붕마저 존재하지 않고 드러난 철근덩이들이 세월의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색의 시멘트 벽돌위에 칠해진 페인트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색으로 반복하여 칠해진 듯하며 마지막으로 파스텔 톤의 연두색이 칠해졌었던 건물이었다.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칠해졌던 페인트는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각자 다른 형태의 흔적들을 만든다.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 이제는 철거될 날을 기다리는 도시의 흉물거리로 변화였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이 공장의 벽은 몸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구성된 화면에 부서진 벽들을 그리고 창틀만 남은 흔적들을 위치가 다르게 그렸다. 전시장에 디스플레이(Display)되었을 때 작품을 제외한 빈 공간은 다른 이어진 벽이 있음을 상상하게 하도록 배치해 보았다.



【작품 5】 벽 · 공간의 기억, 162cm × 261cm, 2009

[작품 5]

제목: **벽 · 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크기: **162cm × 261cm**

정형화된 모양과 크기로 생산되는 벽돌의 역사는 재료의 차이는 있지만 고대로 올라간다.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환경과 쓰임에 따라 다양화 되고 사람들의 삶에서 공간의 나눔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그러나 사용되고 난후 벽돌들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겪는 변화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쓰여 지고 있는 벽돌들도 크기와 색상에서 조금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회색이나 적색이 대부분이다. 그 벽돌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타인의 이목을 위해 다른 옷을 입게 된다. 시멘트가 한 겹 더 발려지고 그 담의 소유인의 취향대로 페인트가 입혀지기도 한다.

이야기가 있는 벽이나 담을 찾아 여러 군데를 다녔다. 그런데 대부분의 낡은 담을 감추기 위해 칠해진 페인트의 색상은 흰색이 주를 이루었다. 진한 흔적들을 감추기에 흰색은 별로 용이한 색상이 아님에도 여러 번 칠해야 하는 수고를 마다않고 대부분은 흰색을 선택한 것이다. 낡고 지저분한 담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함의 상징색인 흰색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듯하다.

흰 담의 가운데와 아래의 벽돌이 한 장썸 빠져 나간 듯한 구멍은 높은 담 안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소통의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막힌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작품 6】 벽·공간의 기억, 78cm × 131cm, 2009

[작품 6]

제목: **벽·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크기: **78cm × 131cm**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말끔한 건물의 벽에서는 약간의 시간과 새것들이 가지는 산뜻함 말고는 별다른 감흥이 오질 않는다. 주로 소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서울에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 다녔다.

몇 번의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요인들로 벽이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낮은 담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가끔은 용도를 모를 인위적인 구멍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크고 작은 구멍들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소재로 삼기에 앞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슬쩍 들여다보고 안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작품을 하고 있을 때에도 보였던 대상을 그대로 그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결국 한 화면에 전체 적으로 보이는 회색 담과 이어진 화감암으로 된 기둥과 함께 직사각형으로 뚫린 구멍으로 다른 풍경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공간을 가두고 경계 지워진 벽에 소통을 위한 작은 숨구멍 같은 통로인 것이다.



【작품 7】 벽 · 공간의 기억, 97cm × 130cm, 2009

[작품 기]

제목: **벽 · 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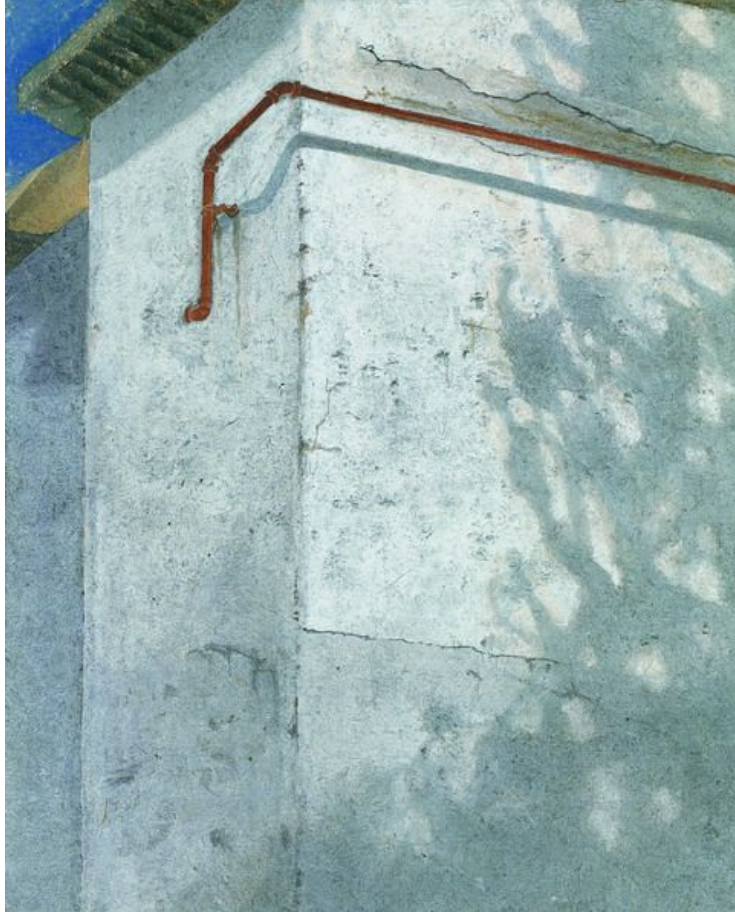
크기: **97cm × 130cm**

후미지고 빛도 거의 차단된 구석진 곳에 위치한 누구도 손보지 않은 듯한 낡은 벽에 오후의 그림자가 겨우 들고 있었다. 벽 그 자체로도 자연현상들을 몸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런 추상 작품을 대하는 것 같았다.

벽 앞에 존재하는 큰 나무의 존재가 벽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보랏빛 도는 이끼들과 벗겨진 페인트, 갈라진 틈들과 함께 어우러져 벽 자체에 스며들어 그 벽의 일부로 보여 지는 듯 했다.

작품의 나타난 그림자를 드리우는 대상은 실제 이미지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화면 밖에 즉 실제의 세계에 남아있는 어떤 것의 투사인 것이다. 그림자를 넣음으로 대면하고 있는 장소의 반대편을 표현해 화면의 확장을 시도해 보았다.

그림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화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들은 작품 속에서 끝이 잘린 '단편'이 아니라 반대편 풍경의 '전달자'인 것이다. 자연에서 그림자는 낮의 바로 어느 한 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작품속의 그림자는 존재와 생성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벽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흔적위에 반대편에 존재하는 나무라든지 낮은 담, 그리고 항상 놓여져 있는 삶과 관련된 물건들이 현재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



【작품 8】 벽 · 공간의 기억, 91cm × 73cm, 2009



【작품 9】 벽·공간의 기억, 131cm × 97cm, 2009

[작품 8]

제목: 벽 · 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크기: 91cm × 73cm

[작품 9]

제목: 벽 · 공간의 기억.

재료: 한지에 채색

크기: 131cm × 97cm

소멸 없이 새로운 창조물들만 생긴다면 세상은 설자리가 없어질까? 생성과 소멸의 판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가 주어진 사람들의 몫일 테지만 원하지 않는 숙명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호흡으로 조용히 숨 쉬는 존재들도 많다.

발전된 도시 서울 속에도 여러 형태의 삶들과 공간들이 공존한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감추어진 모습은 정형화되고 복잡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나를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날아가듯 연결되어 있는 감추어지지 않은 전선들, 터전 밖으로 나와서도 불안해 보이지 않는 물건들, 작고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창의력이 묻어나는 집들의 구조와 나뭇의 디스플레이등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는 모르겠으나 파헤치고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예술적인 작품들로 보였다.

흰 벽 밖으로 너무도 선명히 드러난 가스 파이프는 그 자체로 그들의 생명줄이다. 그 모양도 어느 하나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좁은 벽과 벽 사이로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해준다.

시간 시간마다 달라지는 그림자의 모양이 어우러지는 공동의 삶을 반영하고 같은 호흡을 나누고 있다. 칠해놓은 페인트는 벗겨지고 그늘진 곳에는 검은 이끼가 한창이어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월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공간이 사라진 후에도 움직이는 공기들은 그들의 흔적들과 시간들을 기억할 것이다.

V.결 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는 회화에서도 개념적으로나 표현방법에서의 놀라운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에도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며 시간 속의 이야기들은 벽의 형태로 나만의 기억과 정서로 표현된다.

벽이라는 대상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에 따라 파악되며 시간 공간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또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벽이 가지는 의미와 축적된 시간은 흔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막힌 공간속에 가두어지기도 하며 소통을 위한 노력의 매개물들로 보여기도 하였다.

벽이나 담의 형상으로 과거의 흔적을 통한 시간과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드러내 시간의 궤적을 담고, 작은 구멍이나 부서진 창문 그리고 골목길 등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벽과 사회를 이루고 있는 벽 사이에 세워진 경계의 공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벽으로 형상화 해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지, 시간이 존재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우리가 접하고 사유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시간을 소유한 공간을 작품 속에서는 소통을 가로 막는 장벽으로 부재함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사람들 각자의 기억과 수집 되어진 풍경의 기억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을 것이며 기억하는 풍경과 비슷한 이미지 일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시간과 존재하던 이들의 삶의 공간의 발견은 또 다른 작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다. 지금까지 본인의 작업은 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벽이 가지는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그림자와 흔적을 통해 표현하였고 벽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경계와 부재의 이미지를 구멍과 파이프, 또 창문을 화면에 부각시켜 벽의 공간성에 대해 나타내 보았다.

앞으로는 벽에 드러난 흔적을 지우고 경계의 대상으로 보았던 이미지에 남겨진 흔적이 가진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열린 공간에 드러난 소통의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생각이다.

소외된 시간과 공간의 표현에서 더 나아가 벽을 벽 자체로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며 벽이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는 만큼의 열린 공간과 소통의 장으로 벽 너머의 다른 공간과 대화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표현방법에 대해 노력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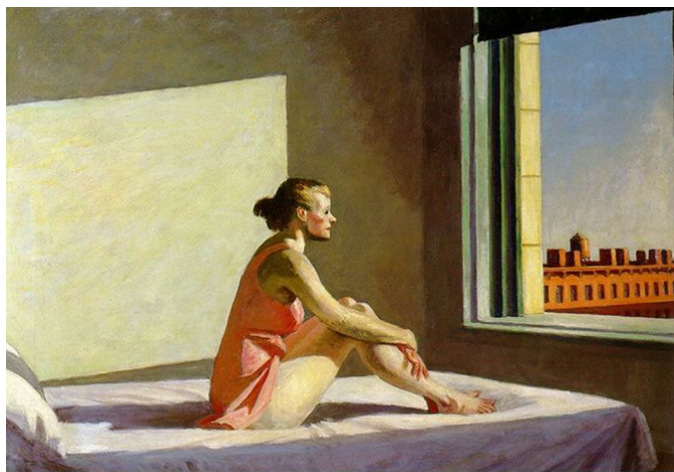
【도판 1】 앤디 골드워시, <무지개 조각들>



【도판 2】 앤디 골드워시, <마가목 잎새들>



【도판 3】 애드워드 호퍼, <밤의 창문>



【도판 4】 애드워드 호퍼, <아침의 태양>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박정자, 『빈센트의 구두』, 도서출판 기과량, 2005.
- 이주영, 『예술론 특강』, 미술문화, 2007.
-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 철학과 동양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1.
- 롤프귄터레너, 『에드워드호퍼』, 마로니에북스, 2005.
- 마틴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1992.
- 빅토르 I. 스토이치타, 『그림자의 짧은 역사』, 현실문화연구, 2006.
- 앙리포시용, 『앙리포시용의 형태의 삶』, 학고재, 2001
- 앤디 골드워시, 『LE TEMPS』, ANTHESE, 1991.

학위논문

- 김미선, 『반복행위를 통한 흔적의 시간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순임, 『에드워드 호퍼작품의 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승아, 『앤디 골드워시의 시간성의 개념과 표현양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진영, 『물질로 표현된 시간성』,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wall with the time and space
- Centering around My Work -

Jun, Eun - he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for the space of the splited wall to have the time and the shape.

The several kind of tracks and the shadow of the wall surface means the time. Holes and windows represent the communication of the space. Own works of wall height and thickness of the kinds of existence between people caused by the strange feeling or the cautiousness was to start with this idea.

At first, all of which is similar to the distance between people, but over time accentuated the thick and thin thick and are accentuated. The wall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from the emotional cracks. Some of that feeling was expressed in a simplified form of wall and the work was represented by containing traces on the surface of the wall through the

emotions of the time .

Work progresses, the walls come from some form of space and the direct action of the surface was exposed to some more tracks. The walls of th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different textures were used for the different types of Korean paper and were represented by the paper made from the banana peel and Korean paper mixed roughly. First steps, put Korean paper mixed with the banana peel on Jangji. The above is a sketch with the light Chinese ink once and cover it with Chinese white and colors to let thick, rough walls feel at least 10 times more than in step 20.

The walls have a thickness of past and current as of the time to the dark Chinese ink or to the light Chinese ink by painting over several times and working hours was experience.